

푸른길, 시민참여 생명공동체의 길

— 광주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례 —



시경희(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사무국장)



1. 들어가며

■ 도시의 현실

-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결정
- 자동차중심의 도시교통문화
- 도심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 부족
- 도시공간활용 구상과정에서 객체가 된 시민들





2. 철도와 도시

-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사이를 가로지르는 경인철도 개설(국내 첫 철도)
- 기차는 근대문명을 전해주는 통로, 근대성과 진보성의 상징
- 철길을 따라 문물이 이동, 철도역을 중심으로 근대도시의 형성

■ 광주와 철도

- 1922년 7월 광주역~송정리간 철도가 개통
- 전통도시인 나주는 쇠퇴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도시형성
- 1922년 광주~담양간 철도 개통(1944년 태평양전쟁의 금속회수령에 의해 철길이 사라짐)
- 1930년 광주~여수간 철길이 개통(현 푸른길공원조성구간)

■ 광려선(광주~여수) 이용형태

- 광주~화순~보성~여수를 연결하는 철길을 통해, 통학, 통근하는 학생,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
- 보성, 여수의 해산물의 남광주시장 유통통로
-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이주의 통로







3. 도심철도 폐선의 과정

3-1. 주민과 광주시, 도심철도 이설을 주장하다.

- 광주역~효천역까지의 10.8Km구간에 29개소의 건널목으로 인해 교통체증
- 소음과 매연, 진동 등 생활환경의 피해
- 철도로 인한 인명 사고 증가
- 철도 양쪽 10m가 시설녹지로 묶여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주택의 증개축 불가
- 철도 내부로의 택지개발에서 철도 외부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짐.
- 도시의 확장에 따라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됨.
- 철도주변 주민들은 1988년『철도이설추진위』결성, 철도이설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전개



3-2. 도심철도 이설 과정

- 1974년부터 광주시 행정과 시민들 도심철도 이설을 요구
- 1976년 철도이설관계관 회의개최,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제안, 소요예산은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
- 1983년 도시기본계획변경, 광주시 교통부장관에게 철도이설 건의
- 1988년 도심철도 이설 확정. 노선, 예산등의 문제로 이설시기가 미뤄짐
- 1995년 도심철도 이설사업 착공(효천역~서광주역~송정역(11km))
- 광주도심철도이설 사업으로 도심내 10.8km의 폐선부지 발생(경전선의 일부)
- 이설비용 1100억원 광주시에서 마련. 철도청으로 부터 5만여평의 폐선부지 광주시로 무상 이관







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







5. 광주폐선부지 푸른길공원

5-1. 개요

- 구간: 광주역~남광주역~동성중간 7.9km(폭 8~15m) 105,613m²
(폐선부지 10.8km 중 동성중~효천역간 2.9km 제외 : 향후 경전철 부지로 활용 계획)
- 사업비 : 200여억원
- 사업기간 : 2002년 ~2008년

5-2. 조성원칙

0 녹지공간조성의 원칙

-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는 녹지공간
- 시민광장, 쌈지공원 조성

0 폭넓은 주민참여의 원칙

- 기본구상, 계획, 설계, 건설,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 주민, 일반시민, 전문가, 행정, 의회 등의 다양한 집단의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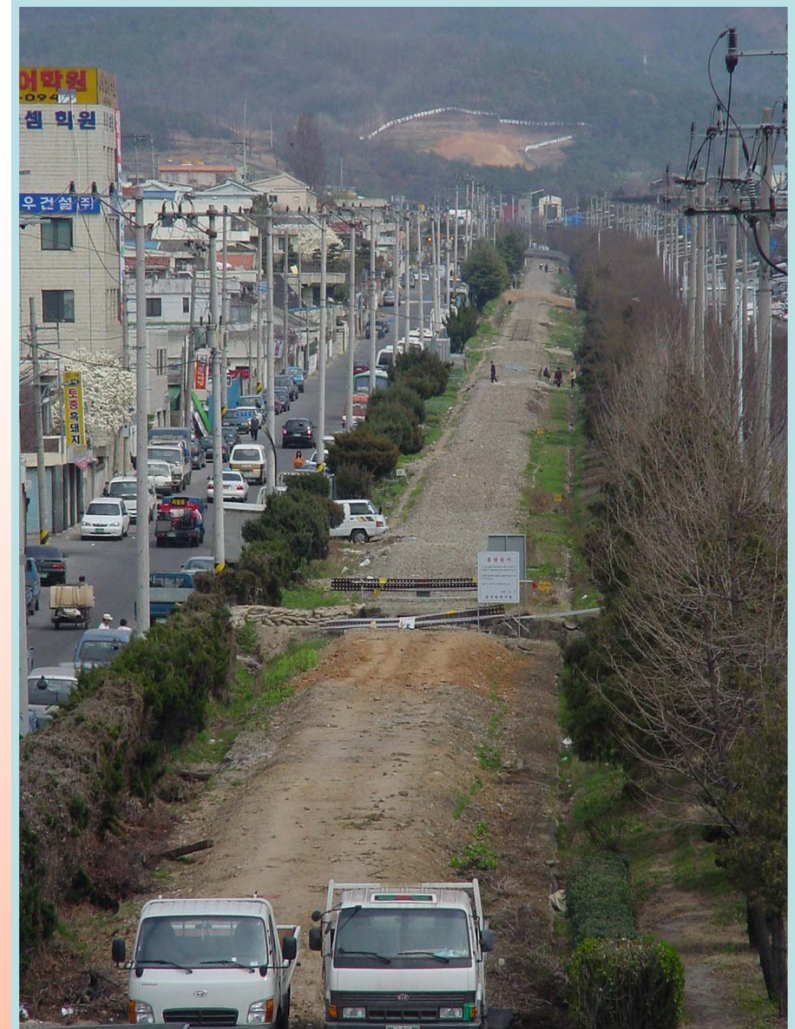
0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견인기능

- 재개발지구,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 폐선부지 주변에 위치함
- 폐선부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실행





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



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

핵(核)과 매듭에 의한 성장하는 녹지축 - “빛과 생명의 푸른길”

A구간: 미래의 푸른길

- 광주역 ~ 동명여중
- 광주역사 재개발과 미래광주를 상징

B구간: 생명의 푸른길

- 동명여중 ~ 남광주역
- 광주의 역사성, 민중항쟁의 생명성 상징

C구간: 빛의 푸른길

- 남광주역 ~ 백운광장
- 광주를 상징하는 첨단과학산업과 문화 예술의 고정 상징

D구간: 청소년문화의 푸른길

- 백운광장 ~ 광주대입구
- 광주시 초, 중, 고등학교 밀집지역
- 청소년을 위한 공간

E구간: 생태환경의 푸른길

- 광주대입구 ~ 효천역
-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

광주역

핵1; 광주역주변

A

핵2; 산수교주변

B

남광주역

핵3; 조선대앞

핵4; 장산초교앞

액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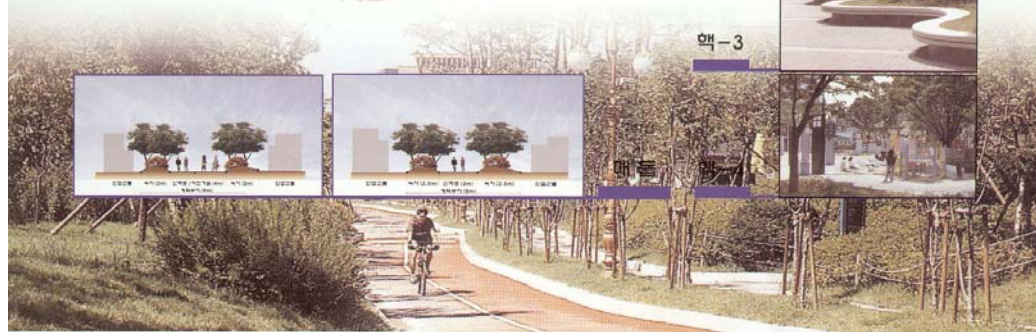
액-2

액-3

효천역



매듭





6. 푸른길, 시민이 함께 만든다.

6.1 푸른길운동본부의 결성

-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인 푸른길의 의미를 높임
- 폐선부지 푸른길결정 이후 시민참여의 푸른길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, 민간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결성
- 경전철반대운동을 전개한 도심철도이설부지 푸른길가꾸기시민회의의 맥을 이음
- 행정과의 대립이 아닌 파트너쉽을 전제로 푸른길조성활동을 펼치기 위함.

■ 구성

- 민간단체 : 환경단체, 직능단체, 사회단체 등 30여개단체 참여
- 지역주민 : 폐선부지 인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단체 참여
- 전문가 : 도시계획,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

■ 결성일 : 2002년 3월 29일





6-2. 시행정과 파트너쉽구축을 통한 거버넌스구축

- 푸른길공원조성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『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』구성, 민간단체,전문가가 상시적으로 협의
- 푸른길공원조성의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 협의
- 운동본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시민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, 운영
- 시민참여구간 설정과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조성







6-3. 시민의 이름으로 숲이 조성되다.

■ 조성하는 과정에 시민참여

- 푸른길100만그루헌수운동을 통해 개인 1만원부터 시민, 단체, 기업에서 푸른길 조성에 참여.
- 가족의 나무, 기업과 단체의 숲조성
- 녹색기부문화 활성화
- 백만개의 이야기가 있는 푸른길(참여에 따른 다양한 참여동기, 참여이후의 관리 이야기 진행)

■ 시민이 관리하는 푸른길공원

- 조성이후, 행정과 함께 주민이 푸른길공원관리
- 도시숲 푸른길은 사업조성으로 완성이 아닌, 지속적인 시민참여관리를 통해 숲이 완성되어감.
-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프로그램 운영

시민과 함께 만드는 푸른길

관주 푸른길 시민참여 매뉴얼

참여 2 참여의 벽

시골로 가는 푸른길에 대한 시민들의 열원을 작은 타일에 그림을 그려넣어 참여의 벽으로 만듭니다.

타일 크기 : 120mm x 120mm 1개 20,000원
 설치장소 : 대청로 농촌리사거리, 미로, 관내면

◆ 개인 타일제

◆ 단체, 가족 타일제

가족과 친구, 단체의 명칭과 사진을 포함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

참여 4 벤치와 쉼터

푸른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참여자의 이름이나 기업, 단체, 동창회의 이름을 새겨 만듭니다.

■ 벤치, 벤치, 벤치, 벤치

■ 벤치, 벤치, 벤치, 벤치

■ 벤치, 벤치, 벤치, 벤치

■ 벤치, 벤치, 벤치, 벤치

함께 만드는 도시숲길 푸른길

■ 시민참여 구간

관주역 - 조신대입

- 위치 및 규모 : 미정
- 참여시기 : 2005년 겨울부터

남광주역 - 백운광장

- 위치 : 미래아동행복 건너편
- 규모 : 길이 80m x 폭 3~6m
- 참여 종류 : 나무, 벤치, 시설물, 기념공판, 참여의 벽
- 참여시기 : 2005년 2월부터

백운광장 - 동성중

- 위치 : 전철동 향신교로~백마로~향신아파트
- 규모 : 길이 880m x 폭 10~20m
- 참여의 종류 : 나무, 벤치, 기념 숲, 바닥타일 및 바닥문양 만들기
- 참여시기 : 2005년 6월부터







7. 푸른길운동을 통한 변화

- 도시공동체, 마을공동체형성
- 생태도시- 녹지공간확보로 도시의 환경성회복
- 문화공간으로 재탄생
- 안전한 통학로 및 산책로 조성
- 주민자치의식 형성





8. 마치며

- 푸른길가꾸기운동은 진행형...
- 교차로 등 푸른길단절공간을 녹지로 연결
- 보행,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
- 폐선부지 주변 녹지공간 확대
- 민간참여의 체계적인 녹지관리 시스템 구축
- 푸른길공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, 도시속 곳곳에 새로운 푸른길을 만들고 연결해나가는 녹지확대운동으로 승화
- 시민이 행정과 파트너쉽을 넘어, 거버넌스체계 구축
-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